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5월 ~ 6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관세, 코드, EAEC, 단일시장, 간소화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관세, 코드, EAEC, 단일시장, 간소화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0. 1. 1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설립

2010. 7. 6
러시아-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
통합관세법 적용

2011. 7. 1
러시아-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
통관절차 폐지

핵심이슈
도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 코드 적용”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 코드 적용

러시아 현지 관세·통관 컨설팅 기업인 VCH 社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는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동맹국 간 새로운 관세 코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관세 코드는 9절 6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사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고 전자화를 적용한다. 둘째, 모든 통관 절차는 전자 양식을 통해 진행한다. 셋째, 허가받은 기업들을 국가 파트너로 지정해 다른 기업에 비해 더 간단한 통관절차 방법을 제공한다. 넷째, 소비자는 새로운 관세 코드 적용으로 인해 우편을 통해 배달되는 외국 상품의 최고가 및 수량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EAEC는 새로운 관세 코드 적용을 통해 통관 절차의 간소화, 무역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 EAEC가 사용하고 있는 관세 코드는 2010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EAEC 내에서 1단계 관세동맹을 맺음으로써 채택되었다. 그러나 해당 코드를 EAEC 차원이 아닌 각 국가 차원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국가 간 통관 절차 및 비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EAEC는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새로운 관세 코드를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EAEC는 새로운 관세 코드로 인한 기대효과로 EAEC 국가 간 통합 시장 형성, 경제 발전 및 무역 규모 확대,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통합 및 질적 발달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지난 2017년 4월 28일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회담에서 EEC 위원장인 올렉 판크라토프(oleg pankratov) 키르기스스탄 부총리가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관세 코드 적용 여부 결정 사안이 본 회담 의제 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이후 EEC 위원들 간의 회담을 통해 새로운 관세 코드 적용이 결정되었다. EAEC 국가들은 코드 적용에 대해 “이번 코드 적용은 EAEC 국가들이 한 창을 통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며 EAEC 회원국들의 통합 시장 형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코드 적용으로 인해 2018년부터 기존에 발생하던 회원국 간의 통관 절차 및 비용의 차이는 사라지고 EAEC 내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유라시아를 타깃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더 강력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Новый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ЕАЭС) должен вступить в силу с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провэд, 2017.6.30
2. Итоги Совета ЕЭК: новый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ЕАЭС вступит в силу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2017.4.28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